

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
제2회 대의원총회 회의록



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
CHUNGNAM PARA SPORTS ASSOCIATION



제2회 대의원총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5. 02. 26.(수) 11:00

2. 장 소 : 충남도청 별관 204호(소회의실)

3. 보고사항

① 2024년 회계 및 사무 감사 결과보고 ⇒ 원안접수

② 사임 임원 보고 ⇒ 원안접수

3. 부의안건

① 2024년 사업결과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 ⇒ 원안가결

② 임원 선임(안) ⇒ 원안가결

-사전 안내 10:56 -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안녕하세요. 오늘 진행을 맡은 기획총무팀장 이정일입니다.
- 바쁘신 가운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2차 대의원총회에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- 회의 전,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회의는 보고 사항 2건과 부의 안건 2건, 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- 휴대폰은 진동이나 매너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개회시간 11:00 -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지금부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2차 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 모두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앞은 자리에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“국기에 대하여 경례“
- “바로“
-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음은 참석하신 대의원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.
- 행정부지사이신 박정주 상임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.
- 게이트볼 연맹 윤춘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골볼협회 김영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골프협회 백순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댄스스포츠 연맹 홍상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배구협회 이강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펜싱협회 김호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사격연맹 유원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아이스하키연맹 전공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
- 역도연맹 서광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육상연맹 전병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조정연맹 김영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축구협회 김상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태권도협회 양철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함께 배석하고 있는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.
- 충남장애인체육회 최재섭 사무처장 직무대행 참석하셨습니다.
- 충남도청 체육진흥과 박성철 체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.
- 이상으로 참석하신 대의원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
- 다음은 성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- 재적 대의원 22분 중 13분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규약 제22조 의결 정족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
- 다음은 상임부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성원이 되었으므로,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제2차 대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-의사봉 3타 -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다음은 상임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. 박정주입니다.
- 제가 2015년도에 장애인체육회에 참석했다가, 한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.
- 우리 장애인체육 가족 여러분, 제가 ‘가족’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우리 최재섭 사무처장님하고 이정일 팀장님과도 잘 아는 사이여서 또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
- 제가 1월 24일자로 왔는데, 그동안에 먼저 총회를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.

- 엄청나게 자주 모여서 논의하신다는 것은 조직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고,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도 많이 늘고,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, 전국 장애 학생체전에서도 3등,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도 성적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들었습니다.
- 어쨌든 저희는 엘리트 성적뿐만 아니라, 장애인 가족들이 체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- 어쨌든 성적을 낸 것은 선수든 지도자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하신 결과라서, 박수 한 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.
- 다들 고생하셨고, 앞으로도 저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말씀하시던데, 최선을 다해 외연도 넓히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-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.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평상시에 자주 보시는 부분이라 오늘은 특별히 복잡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.
-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드리며 잘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그럼, 지금부터 규약 제19조 제4항에 의거 회장을 대신하여 상임부회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예, 먼저 보고 사항 2건을 상정합니다.

-의사봉 3타 -

- 간사는 보고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회의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사무처 규약 제14조에 의거,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2024년도 업무 전반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받았기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- 사무감사 총평입니다.
- 2024년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.
- 생활체육 분야에서 9년 연속 전국 시도 평가 ‘A’ 등급에 선정되었고,
-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전국 장애학생 체전 종합 3위 달성, 행정 분야에서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‘나’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.
- 세부적인 주요 성과와 세입·세출 결산 내용은 부의안건에서 설명드리고,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.
- 첫 번째, 공무원 여비 규정 준수 소홀에 대한 시정입니다.
- 국외 항공운임 지급 시 실비 외 여행사 대행 수수료가 집행되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.
- 두 번째,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소홀에 대한 주의입니다.
-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간 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 통계 목으로 운영비 이외에 경상 사업비, 자본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으나, 장애인실업팀 집기류 구매 시 자산으로 취득한바 향후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어서 사임 임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.
- 충남 장애인 게이트볼 회장이신 장원석 이사께서 회장 임기가 금년 2월 20일 자로 종료되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.
-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골볼협회 김영돈입니다.

- 보고는 보고니까 원안대로 협조할 것을 동의하고요. 궁금한 점 하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. 우리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이 공석 중 아닙니까?
-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고 있나요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지금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그래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또 하나, 우리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지사님이신 거 맞으시죠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예, 맞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이렇게 골볼협회 김태흠 지사님이 계신 뒤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 바쁘시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인사 정도는 하루 한 번이라도 가셔야 하는데 한 번도 회의에서 뵈는 적이 없어요.
- 사석에서는 많이 편을 보는 사람이지만, 그만큼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점은 임기가 1년 2개월, 3개월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.
- 그 안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,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.
- 오셔서 회의를 주관할 못하시면 인사라도 오시면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을 텐데, 물론 상임 부회장이 주관해서 해도 다 반영되겠죠? 그렇지만 지사님인 회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주관하시면 그때와는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
- 지금 이게 제 소견인데,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○ 네, 회장님. 제가 상황은 잘 몰랐는데, 한 번도 안 오셨다니 반드시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○ 네, 김영돈입니다. 아실 거예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○ 아, 그럼요.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○ 원안대로 보고는 접수할 것을 동의합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○ 네, 네.

< 김영돈 회장 >

○ 네, 감사합니다.

< 유원기 회장 >

○ 사격연맹 유원기라고 하고요, 작년이죠, 작년에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○ 네.

< 유원기 회장 >

○ 많은 수고를 해서 지금 충남 장애인체육회 예산도 계속 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, 항상 이게 총회 때 대의원 회의 때 보면 반납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

- 그래서 사실은 그 반납 액수가 2억 이상이 넘어가서 좀 궁금한데,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떤 부분이 반납되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예. 보고드리겠습니다.
- 사업비 잔액은 총 5억 2,500만원 정도 되는데요.
- 도비 보조금이 2억 5,662만 4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.
- 잔액 사유는 운영비에서 4,877만 9천원이 발생을 했는데, 육아휴직으로 휴직했던 직원이 4월에 복귀했고, 그다음에 7월에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에 좀 갭이 생겨서 인건비가 좀 남은 상황이고요.
- 전문체육 육성에서 1억 6,500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전문체육 지도자를 아무나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, 저희가 지도도 가능하고 선수로도 될 수 있는 플레잉 코치를 섭외하다 보니까 볼링, 수영, 축구 지도자를 3월에 채용했고, 양궁 지도자를 저희가 12월에 채용했습니다.
-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했고, 실업팀 월채어력비 선수가 좀 공석이 좀 발생을 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이후에는 이적할 수가 없다는 중앙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우수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공석이 있었습니다.
- 나머지는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비 잔액 한 300만원 정도, 그다음에 가맹단체 실무자 활동비 잔액 200만원 이런 것들이고, 생활체육지원 사업에서 4,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, 이 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기금과 도비가 매칭인데 행정 지도자를 3월, 9월에 저희가 채용했고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지금 공석으로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 자격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사항이고요.
- 기금에서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항은 좀 전에 보고드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기금하고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뺄리지 않게 되면 기금도 남고 도비도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.

- 그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 불용액은 많지는 않고 인건비 저희가 채용을 좀 늦게 했거나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은 그런 비용이고 전체 5억 중에서 2억 3천은 저희 자부담이기 때문에 2월 시켜서 금년도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.
- 작년에도 말씀 주셨는데 올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유원기 회장 >

- 감사드리고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우리 유원기 회장님 말씀 듣고 우리 김영돈 회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.

< 유원기 회장 >

- 죄송합니다. 먼저 하시겠어요?
- 연결되는 거라, 작년에도 전문 체육 지도자 모집 관련해서 아마 반납한 액수가 좀 됐었거든요.
- 그래서 혹시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그 정도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현재는 전체 채용했습니다.

< 유원기 회장 >

- 올해는 채용 다 채용하신 거예요?
- 수고 많으셨습니다, 감사합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김영돈 회장님 말씀하시죠.

< 김영돈 회장 >

-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
- 네 아까 보고 사항은 접수된 것에 선언을 안 하셨어요, 그렇죠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안 했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선언하고 나서 이따 얘기할 거 아니에요?
- 네 우리 진행자가 얘기했을 때 지금 질문할 것을 했더라 하는 게 맞아서 의사진행 마련하는 거고요.
- 그다음에 어쨌든 의결에 대한 안전을 이야기 하면은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네 알겠습니다. 좀 전에 우리 김영돈 대의원님께서 보고 안전 보고 안전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다른 대의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셨습니다.
- 보고 한 건, 두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대의원님 혹시 계십니까?

< 대의원 일동 >

- 없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그러면 더 이상 이견이나 의견 주실 대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고 사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.
-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보고 사항 2건은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의사봉 3타 -

- 다음은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의안번호 제1호 2024년 사업 결과 및 세입·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.

- 의사봉 3타 -

- 간사는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회의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0조에 의거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세입·세출 결산(안)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입니다.
- 2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. 회의 자료는 11페이지입니다.
- 전국 최초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사업 9년 연속 ‘A’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.
- 또한,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.
- 공모를 통해 기금 1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대 인원인 4,431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전국 최고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동 대회는 우수 개최를 인정받아 금년부터는 지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-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.
- 육상 종목에서 대회 9연패, 디스크 골프는 대회 4연패, 다관왕은 12명을 배출하였습니다.
-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‘정소영’ 선수와 휠체어 펜싱 ‘권효경’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.
- 또한,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누적 11개사 37명 입단으로, 전문체육 선수의 안정적 훈련 환경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.
-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‘나’ 등급으로 안정적 기관 운영을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.
- 자료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분야별 업무 추진 실적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기에 자료로 대신하고, 이어서 자료 24페이지 2024년 세입·세출 결산(안)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세입·세출 총괄입니다.

- 일반 회계 예산 87억 4,757만원 중 세입 결산액은 87억 4,357만원이며, 세출 결산액은 82억 1,831만원이고, 잔액은 5억 2,525만원입니다.
-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.
- 정상적 세외 수입은 예산액 70만원 대비 35만원이 감액된 34만원이며
- 임시적 세외 수입은 예산액 4억 3,775만원 대비 7만원이 증액된 4억 3,782만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.
-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2억 8,425만원이 세입 되었고, 도비 보조금은 63억 4,943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.
- 보전 수입은 예산액 6억 7,543만 원 대비 371만 원이 감액된 6억 7,171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.
- 예산액 87억 4,757만원 대비 82억 1,831만원을 세출하여 잔액은 5억 2,9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.
- 행정운영경비에 13억 8,112만원,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에 16억 2,007만원,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에 46억 9,276만원, 재무 활동에 5억 2,4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.
- 잔액 이월 내역입니다.
- 기금 반납금 3,057만원이며, 도비 반납금은 2억 5,662만 원이고, 충남교육청 및 모금회 반납금은 12만원이며, 자부담 2억 3,780만원은 이월하여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.
- 자료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, 세입 ·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.
- 그러면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세입 · 세출 결산(안)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.
-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대의원님께서서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좀 전에 불용액만 남았는데 주문도 하셨고 저기에서도 주문하셔서 지금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적 사항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임 회장님께서 내년에는 2025년에는 그렇게 불용자산을 남기지 않고, 잘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네.
- 그렇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회장님.

< 김영돈 회장 >

-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.
-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골볼 참 작년에 행사하느라 애로가 많았습니다.
- 우리 충청남도에서 3천 500만원을 세우셨어요.
-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 행사들 추이라면 그보다 거의 천만 원 가까이가 더 들어가는 행사를 했거든요.
- 그래서 중앙에 가서 한 700만원을 가서 끝어서, 나머지는 우리 제가 충남 골볼협회 회장이니까 제 몫이어야죠.
- 행사를 치렀는데, 대단히 유감스러운 지사님이 지금까지 전국 골볼대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죄송합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별도 저녁 자리에서 회장님을 뵙고,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장님이 너무 바빠서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, 금년에 예산을 얼마 지원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. 얼마니까?

< 최재섭 사무처장 직무대행 >

- 3천만원입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3천만 원 갖고는 대회를 축소를 시켜서 전국대회를 실업팀만 모아서 하라는 겁니다.
- 실업팀이 약 4~5개밖에 5개 팀밖에 없는데 이 골볼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파리 패럴림픽에 일단 여자 선수들이 아시아 티켓까지 따서 참가도 했어요.
- 골볼이 세계 장애인체육에서 구기 종목은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아져서 세계 대회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해 있는데, 그런 큰 전국 대회를 충남에서 잘하던 거를 축소해서 전국 상비군이라든지 청소년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와서 전국대회에 참여 못하게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은 충남 골볼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.
- 결국 전국 골볼도 마찬가지로 큰 대회에서 자꾸 경험도 쌓고 해야 하는데 그 대단히 이 부분은 사무처장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건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
- 나도 뭐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바빠서 지난번 회의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회장님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 한번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예산도 더 챙겨주시고, 또 모자라면 중앙에 가서 이렇게 골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충남에서 신경 쓰는데 이것도 부담을 해야겠잖아요.
- 제가 저기 전국 골볼 중앙도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금년에는 전국대회를 작년처럼 성대하게 열릴 수 있게 하고, 지사님도 한 번쯤은 와서 오시도록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작년하고 24년하고 25년 예산이 우리가 56억에서 제 기억으로 68억으로 한 20%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, 우리 회장님은 줄었다고 하네요. 그쵸?

< 김영돈 회장 >

- 3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 밖에 안 해주잖아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그러니까요, 500만원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?

< 최재섭 사무처장 직무대행 >

- 도지사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3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, 2,500만원 지원하고 있고,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500씩 하고 있어서 매년 3,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하여튼 회장님 그거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을 테니까 논의하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.

< 골볼협회 김영돈 회장 >

- 예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그렇게 하시죠.
- 또 추가 질의하실 대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편안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질책하거나 그런 대의원총회가 아니라서요.
- 정공철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.

< 정공철 회장 >

- 네, 안녕하세요.
- 아이스하키 정공철입니다.
- 발언을 하면 항상 자기 분야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,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괜찮습니다. 그건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.

< 정공철 회장 >

-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, 이제 저희가 장애인 아이스하키를 육성하고 장애인분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회를 자체적으로 도 체육회에다가 이제 건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쪽으로, 저희도 이제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1회 2회째를 했고, 당연히 이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체육회에서도 지원받으면서 하고는 있습니다.
- 근데 이제 저희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얘기하셨듯이 3개 대회에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이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
-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국대회를 저희도 도지사대회로 하면 좀 여러 가지 환경 조성도 좋아질 것 같고 해서 건의를 사실 계속 드리는 부분이거든요.
-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숙소 문제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주위에서 일부 지원받고 또 이렇게 저희 단체에서 신협이나 이런 데 지원받고, 저희 이사들이 또 자부담을 꽤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3,500만원, 4,500만원 들어간다는 그 비용까지는 아니지만, 최대한 저희가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은 만들고는 있는데, 해마다 반복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도 차원에서 지원이 돼서 도지사배 대회로 원활하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.
- 저희가 두 번은 최대한 열심히 끌어서 행사를 치렀지만, 내년부터라도

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어떤 행정적인 이런 준비를 좀 해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.

-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부담하고 했던 부분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.
- 더 좋은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자는 건 아니고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갖출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협회마다 회장님들께서 굉장히 애로사항 많은 거를 챙기시느라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.
- 또 추가로 말씀하실 대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-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?

< 김영돈 회장 >

-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
- 제가 골볼협회 회장을 처음 맡았을 때 사무처장이 변현수 사무처장이 임기가 처음 전에 사무처장 임기가 돼서 그때 사무처장을 다시 이제 뽑을 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이라고 할까요?
- 하여튼 그때 들어와서 인사하는 데 참여를 했었거든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임원 추천 위원회 참여를 하셨겠네요.

< 김영돈 회장 >

-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.
- 왜냐면은 원래 이제 사무처장은 체육회 이사회를 열고, 이사회에서 선출되면 지사님한테 인증을 받는 걸로 절차가 돼 있나요?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?
- 인사 채용 절차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
- 저희가 사무처 규정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무처장은 별정직이고 나머지 직원은 일반직인데 채용계획을 수립합니다.
-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받고 나면 채용 절차에 따라서 면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, 회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서 회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을 이사회 임명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.
- 근데 다른 이사님들은 대의원총회에서 임명을 해주셔야 가능한데 규정상 당연직 이사와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.
- 그래서 이사회 임명 동의까지 거쳐서 원안 가결될 경우, 정식 임명이 되시는 겁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인사위원회가 위원회가 다시 또 하나 있는 거군요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그러면 처음에 기본 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돼 있습니다.

< 김영돈 회장 >

- 알겠습니다. 구조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설명 되셨습니까? 회장님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대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
- 네, 더 이상 질문하실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.
- 원안대로 이렇게 그러면 하는 부분에 동의하시나요?

< 대의원 일동 >

- 동의합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원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제청을 해 주셔서 그렇게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을 주신 대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 번호 제1호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세입 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- 의사봉 3타-

-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.

- 의사봉 3타-

- 간사는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회의 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를 선임하고자 함입니다.
- 주요 내용은 2023년 5월에 선임된 감사의 2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사무처 규약 제11조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여 현 감사를 연임하고자 함입니다.
- 인적 사항 및 주요 경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선임이 되신다면 임기는 금년 3월부터 2027년 정기총회까지 2년임을 보고드립니다.
- 관련 근거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제12조 임원의 선출 방법입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 간사는 수고하셨습니다.
- 그러면 임원 선임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.

○ 선임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 골볼협회 김영돈 회장 >

○ 감사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까?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○ 한 분은 당연직이고요, 한 분은 지금 연임하려고 하시는 분은 회계 전문가로서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

< 골볼협회 김영돈 회장 >

○ 알겠습니다. 원안대로.

< 대의원 일동 >

○ 동의합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○ 네, 대의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안건 2호에 대해서 2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.

○ 더 이상 질문이나 의견을 주실 대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원 선임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- 의사봉 3타-

○ 이상으로 보고와 심의 안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이제 다음에 토의 시간인데, 장애인체육회 발전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네, 이강식 회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이강식 회장 >

○ 배구협회 이강식입니다.

- 제가 전국 체전을 한 4년을 쫓아다녀 봤어요. 보호자로.
- 근데 보호자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휠체어도 싣고 여러 가지 싣고 다니거든요.
- 운동 경기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기름값이 5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.
- 봉사하러 오신 분들인데 기름값이라도 충분히 주시고 톨게이트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실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?
- 원래는 실비로 되잖아요, 정산하면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예. 저희가 출장비 개념으로 해서 거래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이강식 회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.
- 원래 규정상으로는 실비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.
- 근데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.

< 배구협회 이강식 회장 >

- 실제 다녀보니까요. 기름값 5만원 갖고는 어렵도 없어요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네, 그래서 들어간 비용 정산을 별도로 하거든요, 거리에 따라서.
- 그러니까 아마 5만원이 아닐 겁니다.

< 이강식 회장 >

○ 그래요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원래 규정상으로는 사용한 비용은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.
- 그래서 그 금액이 실제 그 기름값 변동 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규정이 있어요.
- 그래서 얼마까지는 얼마 드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< 이정일 기획총무팀장 >

- 예, 그거 전국 장애인체전 참가 계획 수립하기 전에 대의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정확히 들으시고 그렇게 좀 처리하십시오.
- 추가로 또 질의하실 의견 주실 대의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.

< 김영돈 회장 >

- 지금 말씀하는 거 우리 직원들 체육회 직원들 참 애 많이 쓰거든요.
- 그런데 그건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?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아니 그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.
- 근데 딱 그게 있어요.
- 딱 멀리 가면은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흡족한 수준이나, 예를 들면 지금 기름값이 비싼데 그걸 맞추냐,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
-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면 말씀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.
- 네 아마 그럴 겁니다.

< 최재섭 사무처장 직무대행 >

- 저희가 전국 체전 참가에 대한 전체 예산이 있는데요.
- 매년 좀 다르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각 경기단체에서 좀 인원을 좀 늘려달라는 경기단체가 있고 또 보호자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.
- 그러다 보면 또 유류비가 조금 넉넉지 않게 나갈 수 있겠지만, 다른 종목에 선수가 좀 더 출전한다거나, 또 보호자 한 명 더 간다거나 하게 되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.
-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참고해서 실비 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그러니까 공무원도 ‘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정산할 수 있다.’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.
- 그러니까 그거는 사정에 따라서 다를 부분이기도 하고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

< 최재섭 사무처장 직무대행 >

- 네 알겠습니다.
- 저희가 경기단체와 관련해서 1차 회의를 할 건데요, 그때 이제 사무국장님들 오시거나 이럴 때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분석을 해서 그때 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 박정주 행정부지사 >

- 또 추가로 말씀하실 대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더 이상 말씀하실 대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.
- 더 이상 말씀하실 대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2차 대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. 폐회를 선포합니다.

- 의사봉 3타 -

○ 수고하셨습니다.

- 폐회시간 11:45 -